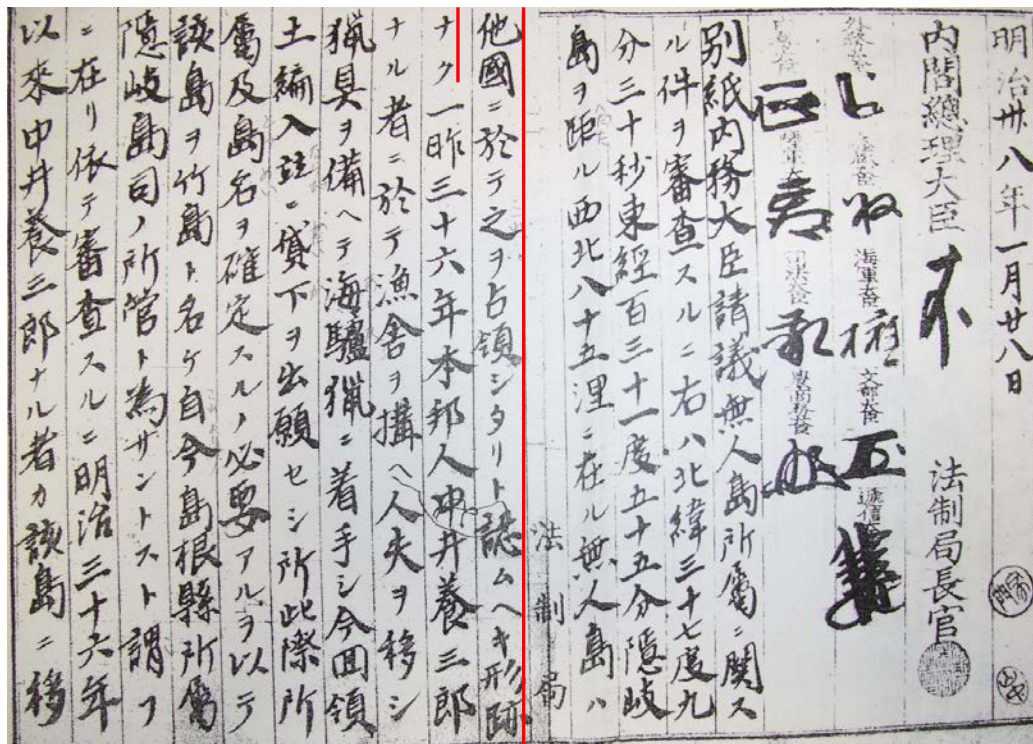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명백한 거짓주장 을 즉각 중단하라!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1.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다!

- 1905년 1월28일 일본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섬에 강제편입 시켰을 때, **각의결정문서**에는 독도가 **'무주지(無主地)'**, 즉 **주인이 없는 땅**으로 기재되었다.
- 그것은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니라는 뜻이면서 한편으로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일본자체가 인정한 공문서였다.
- 즉 1905년 1월28일,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빨간 선 부분 : 타국이 이것(독도)을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흔적이 없다(=독도는 무주지<無主地>다)(1905.1.28. 일본 내각 각료회의 문서)

- 일본정부는 이러한 자기모순에 대해 '역사적으로 독도를 영유해온 일본은 1905년 국제법적으로 독도영유의 사실을 **재확인**했다'(2012.8.24. 노다 요시히코 전 일본총리 발언) 는 말로 일본국민과 세계를 속이고 있다
- 일본정부가 1905년 1월 독도를 일본영토로 **재확인**했다면 그 이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확인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 그러나 **일본은 1905년 이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확인한 역사적 근거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억지를 부리기 전에, **1905년 이전에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확인한 일본정부의 공식 기록을 제시해 보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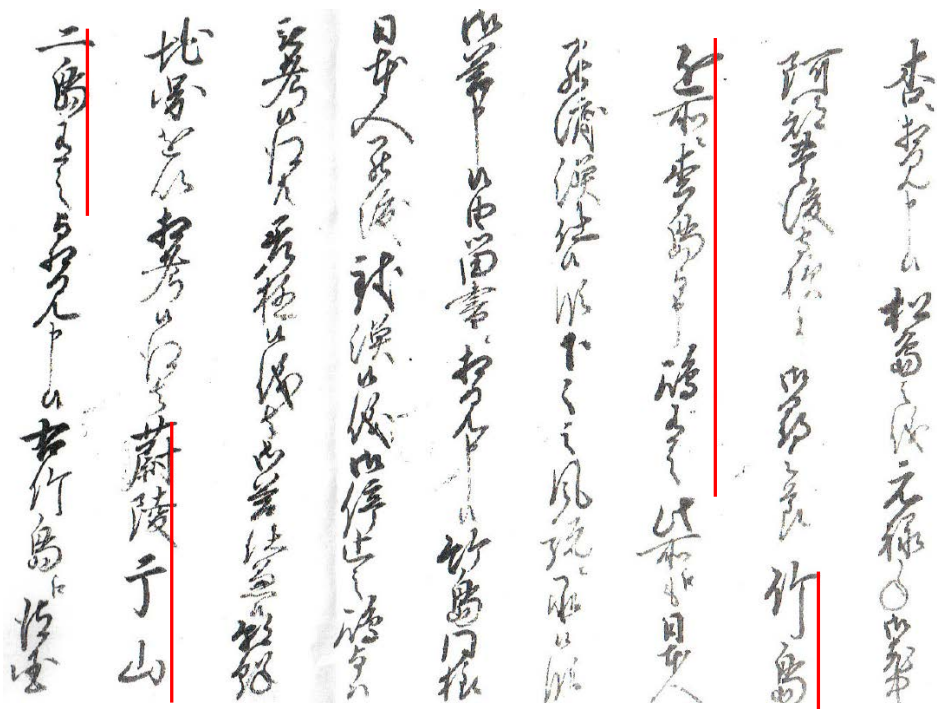
2. '우산도'가 '독도'임을 증명하는 일본 내 공문서

- 19세기 중반까지 일본에서 울릉도를 죽도(竹島), 독도를 송도(松島)로 불렀다.
-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두 섬을 울릉도(鬱陵島)와 우산도(于山島)로 불렀다.
- 그러나 일본 측은 우산도는 송도(독도)가 아니라고 억지를 부린다. 그런 문서가 일본에 없다고 우겨왔다.
- 그런데 **일본이 우산도가 송도(=독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본의 공문서가 발견되었다.**

- 1) '대마도 종가문서 고문서(No.4013)'를 보면, 당시의 일본정부인 에도막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대마번이 '일본에서 말하는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조선에서는 울릉도와 우산도라고 한다'라고 확인한 기록이 남아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문서)
- 2) 일본 측은 한국 측 기록이나 지도에 한국영토로 나타나 있는 '우산도'를 독도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 그러나 위 고문서는 당시 조선에서 독도를 '우산도'라고 부르고 있었음을 일본자체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 <인용문>

- 朝鮮國江原道蔚珍縣之東海中二蔚陵島与申離島有之、日本二而竹島与相唱申候、(중략)松島之儀、元祿年御老中阿部豊後守様より御尋之節、竹島近所二松島与申嶋有之、(중략)朝鮮地圖を以相考候得者、蔚陵・于山二島有之与相見申候
- (강원도 울진현의 동해 가운데 울릉도라는 섬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죽도(=다케시마)라고 합니다. (중략) 송도(=마쓰시마)에 대해서는 겐로쿠(元祿) 연간 (막부의) 로쥬 아베 봉고수(豊後守)님이 문의하셨을 때, 죽도 근처에 송도라는 섬이 있어 (중략) 조선지도로 말하자면 울릉 우산 2섬이라 생각됩니다.)



번역) 송도(=마쓰시마)에 대해서는 겐로쿠(元禄) 연간 (막부의) 로쥬 아베 봉고수(豊後守)님이 문의하셨을 때, **죽도 근처에 송도**라는 섬이 있어 (중략) 조선지도로 말하자면 **울릉, 우산 2섬**이라 생각합니다.

- 3) **이와 같이 우산도, 즉 독도는 수많은 조선의 고문서와 고지도에 조선영토로 기재, 묘사되어 왔다.**
- 4) **일본은 우산도(=독도)가 조선 땅임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외면해 왔다.**

<참조> :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한 반박>(이훈 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2011.6.1.) “독도에 관한 오해와 진실 국회 심포지엄”, 발표문.

3. 외무성 다나베 국장이 송도를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으로 단정

- 1876년, 일본의 민간인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学)가 외무성에 「송도개척 건」을 올렸다. 제목의 '송도(松島)'란 여기서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뜻한다. 당시 섬의 명칭이 혼란되어 일본인들이 울릉도를 송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
- 그런데 이 건의서에 대해 외무성의 다나베 다이치(田辺太一)국장이 송도를 종래대로 독도로 규정해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인용문>
- 송도(=마쓰시마)는 우리 일본인이 명명한 이름이고 실은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이다. 울릉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것은, 구 정부(에도 막부) 시대에 양국 사이에 갈등이 생겨 문서왕래 끝에 일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한 것이니, 그것은 양국의 역사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유 없이 사람을 보내 울릉도를 조사시킨다는 것은 타인의 보물을 넘보는 행위다. (川上健三,『竹島の歴史 地理学的研究』,1966,p.44)

빨간 줄 진 문장 :
송도(=마쓰시마)는
우리 일본인이 명명
한 이름이고 실은 조
선의 울릉도에 속하
는 우산이다. (川上健
 三,『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1966, p.44)

松島巡視要否ノ議
 甲云 昔日開港ノ略定リテ而後今日視察ノ要否ヲ論スヘシ 聞クカ如キハ松島ハ我邦人ノ命セル名ニシテ其地ハ朝鮮蔚陵島ニ屬スル于山ナリ 蔚陵島ノ朝鮮ニ屬スルハ旧政府ノ時一葛藤ヲ生シ文書往復ノ末未ク証テ我有トセサルヲ約シ載テ阿國ノ史ニ在リ 今故ナク人ヲ遣テコレヲ巡視セシム 此ヲ他人ノ宝ヲ數フトイフ 況ンヤ跡隣境ヲ侵越スルニ類シ我ト韓トノ交漸ク緒ニ就クトイヘトモ猜嫌猶未全ク除カルニ際シ如此一舉ヨリシテ再ヒ一隙ヲ開カンコト尤交際家ノ忌ム所ニ出ツルオヤ 仮令該島ヲシテ韓籍ニ屬セストモ南無人島ヲ開キ琉球ヲ藩トスルモ識者或ハ其宜ニ非サルヲ論ス 現今ノ務方ニ國脈ヲ靜養スルニアリ 鮮ヲ煎テコレヲ擾ス 計ノ得ルモノナラス 松島斷シテ開ク能ワス 又開クヘカラス 其不能不可ヲ知テコレヲ巡視スル豈無益ナラサランヤ 況ヤ後害ヲ醸サントスルオヤ 乙云 開港ノ略ハ視察ノ後ニ非サレハ定ムル能ハス 版圖ノ論今其實ヲ視ス 只ニ蠟紙上ニ掘信スルハコレヲ可トイフヘカラス 況ンヤ我近海ニアリ 我民ノ韓ノ内地ニ航スルモノ歸ノ藩地ニ航スルモノ必由ノ途タレハ其地ノ形状ヲ悉サスシテコレヲ不問ニ措ク我君務ヲ尽ササルニ幾シ 故ニ該島ハ勿論所謂竹島ナルモノモ亦巡視シテソノ今日ノ狀ヲ詳知スヘシ 巡視ハ必要スル所ナリ サレトモ英露等ノ船ヲ屢ヒ僅ニ一日半日ノ碇泊ヲナシ一人二人ノ官吏上陸視察ストモ甚々救事ナキハイフヲマタス 且今日ヲ失フテハ

公信局長 田 辺 太 一

4. 결 론

- 에도 막부든 일본 외무성이든 **송도(독도)를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이라고 알고 있었다.
- 바로 일본은 옛부터 **우산도 즉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다.**
-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1905년 일본정부는 독도를 무명이자 무주지(無主地)라는 속임수를 써서 **시마네현으로 강제 편입시켰다.**
- **조선의 우산도(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일 수가 없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명백한 거짓주장을 하루속히 중단하여 왜곡과 은폐의 죄를 한국에 깊이 사죄해야 한다.